

# 순천만정원 '스카이큐브' 갈등 봉합되나

〈무인궤도열차〉

### 대한상사중재원, 내년 1월 13일 화해 권고안 제시 순천시·업체 수용 여부 관심...결렬뎀 중재원 판정 따라야

순천만국가정원의 소형 무인궤도열차(PRT·Personal Rapid Transit)인 '스카이큐브' 운영을 둘러싼 순천시와 업체의 갈등이 봉합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스카이큐브 분쟁 중재를 맡은 대한상사중재원은 지난 18일 3차 심리를 열어 순천시와 스카이큐브 운영업체인 에코트랜스에 화해 권고안을 제시하면 수용할 수 있을지 제시했고 양측은 중재원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대한상사중재원은 화해 권고안을 마련해 내년 1월 13일 회의를 열어 순천시와 에코트랜스의 화해를 중재하기로 했다.

2014년부터 스카이큐브 운영을 시작한 에코트랜스는 만성적인 적자의 책임이 순천시에 있다며 3월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했다.

5년간 투자 비용 분담금(67억원)과 미

래에 발생할 보상 수익(1300억원) 등 모두 1367억원을 보상하라고 요구한 상태다.

순천시도 스카이 큐브 시설 철거 비용 200억원을 운영업체인 에코트랜스가 부담해야 한다며 반대 신청을 냈다.

대한상사중재원이 제시한 화해 권고안을 양측이 받아들이면 1년여간 끊어온 스카이큐브 문제가 봉합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화해권고안이 양측이 바라는 수준으로 나오지 않아 합의가 결렬되면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판정부가 최종적으로 판정하게 된다.

순천시와 에코트랜스는 일단 화해 권고안을 보고 입장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상사중재원이 제시한 화해 권고안으로 양측이 접점을 찾을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예단할 수는 없다"며 "지역사회에 시설물을 환원하거나 나



순천만정원 내 스카이큐브 정원역.

른 식으로 이용하는 계획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에코트랜스 관계자는 "화해안을 갖고 쌍방이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고 협의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중재위원들이 현장

검증을 왔을 때 좋은 시설을 철거하기보다는 운영하는 쪽으로 해보자는 입장이어서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화해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



## 목포해경, 미디어포유-KJ드론 클럽과 업무협약

목포해양경찰은 지난 19일 경찰서 회의실에서 미디어포유-KJ드론 클럽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

협약식에는 채광철 목포서장과 미디어포유-KJ드론클럽 김용은 대표, 동호회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목포해경은 해상사고 발생 시 드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다양한 해양수색 활동을 펼친다.

2012년 드론클럽을 결성한 이 업체는 보유 중인 헬리캠 등 총 27대로 재난 현장에서 수색구조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채광철 목포해양경찰서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드론을 활용해 해안가 수색과 순찰에 큰 도움이 기대된다"면서 "앞으로 해양안전을 지키기 위해 민·관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

# 영광군, 양식 참조기 대량 생산 길 열어

### 3년연속 수정란 구입비 등 지원 영광군수협 위판장 첫 출하 굴비 업체 안정적 원료 확보



영광군 어민들이 근해에서 양식한 참조기를 옮기고 있다.

〈영광군 제공〉

영광군이 3년 연속 지원을 통해 양식 참조기 대량 생산의 길을 열었다.

영광군은 굴비 가공업체의 안정적인 원료 공급을 위해 육성한 양식 참조기 548상자(24만6000마리)를 영광군수협 위판장에 첫 출하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14일 어린 참조기 종자를 해상 가두리와 육상수조식 양식장에 입식한 지 6개월 만에 마리당 100g으로 성장해 출하됐다.

영광군은 지난 3년간 참조기 수정란 구입비와 어린 종자 입식비 등을 지원했다.

전남도 해양수산과학원 영광지원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다양한 양식 방법과 기술개발을 위해 노력한 결과 대량생산 노하우도 축적했다.

2003년 참조기 종자 생산기술을 개발한 후 2009년에는 대량 종자 생산에 성공하면서 양식 산업의 기틀이 마련됐다.

참조기는 양식 과정에서 고수온과 질병에 강한 어종으로 확인되면서 아열대 기후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대체 품목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6개월 단기간에 생산이 가능해 고소득을 올릴 수 있을뿐

만 아니라 굴비업체를 위한 안정적인 원료 확보를 실현했다는 측면에서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이번에 출하된 참조기는 곧바로 굴비 가공업체에 판매하지 않고 냉동보관 후 내년 4월께 가격을 모니터링 후 위판할 계획이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

영광군 관계자는 "올해 양식 결과 참조기 양식의 산업화 가능성이 확인됐다"며 "내년에도 다양한 양식 방법을 통해 참조기 생산량을 130만마리 이상으로 끌어 올려 안정적인 굴비 원료 공급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 장흥군, '축제관광재단' 논란 "민간주도 행사 추진에 예산낭비 우려 높다"

장흥군이 모든 축제행사를 민간주도로 이끌어간다는 취지로 '축제관광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장흥군에 따르면 오는 2021년 운영을 목표로 현 우수축제인 정남진물축제에 비롯한 모든 축제에 군인이 주도하는 일명 '장흥축제관광재단'을 설립할 계획이다.

군은 축제관광재단이 설립되면 축제분야 전문가를 영입, 축제 운영 역량을 강화해 '정남진물축제'를 전국을 대표하는 글로벌축제나 대표축제로 만들고 낮은 재정자립도도 향상시킨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축제관광재단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만만치 않아 설립추진을 놓고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축제에 소요되는 모든 예산이 지자체에서 충당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재단이 설립되더라도 재단 관계자보다는 지자체장의 의중에 따라 행사가 주도될 가능성이 높을 상황이라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열린 축제발전위원회에서 장흥군 의회 의원들과 일부 위원들은 "지역 특성상 관광축제분야에 식견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채용이 어려울 뿐 아니라 상근 인력 및 재단 운영에 따른 막대한 예산낭비를 조려할 우려가 있다"며 축제관광재단 설립을 강하게 반대했다.

## 순창군, 27일 향토회관서 판소리극 '화용도' 공연

순창군은 오는 27일 오후 7시 순창향토회관에서 판소리극 '화용도(포스타)를 군민들에게 선보인다.

11월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마련된 이번 공연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하는 방방곡곡 문화 공감 사업에 선정된 마지막 공모사업이다.

화용도는 적벽가 중 '군사 설움 타령'을 모티브로 한 판소리극으로 공연 관람을 원하는 사람은 당일 선착순으로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이 공연은 중국 위촉곡 삼국시대 적벽대전을 앞두고 조조의 군대인 위나라 군사들 사이에서 오랜 시간 전쟁에 시달리며 군사들이 느끼는 불안한 심리에 대한 이야기를 현대적 감성에 극적인 효과를 담아 제작된 작품이다.

공연을 주관하는 '문화예술공작소'는 전북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예술창작단체로 대부분부터 연출, 기획, 배우 등 창작공연에 수반되는 모든 과정을 자체적으로 확립, 제작하는 전통예술의 창의성과 전문성이 높은 단체다.

한편 순창군은 올 한 해를 돌아보고 마무리하는 마음으로 12월 17일 오후 7시 '2019 송년음악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순창=장양근 기자 jyg@

## 익산시, '다문화 사랑축제' 23일 개최

익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제14회 다문화 사랑축제'를 23일 개최한다.

원광대학교 60주년 기념관에서 개최되는 이번 축제는 다문화 가정의 화합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축제는 회원들의 끼와 재능을 선보일 수 있는 무대로 꾸며진다.

축제는 예년과 달리 다문화와 비다문화가 함께 동참한다.

행사는 식전공연인 다문화 강사들의 의

상퍼레이드 개막을 시작으로 1부에서는 사업 영상보고와 시상식이 진행된다.

2부에서는 한 해 동안 배운 것을 발표하고 가족들이 끼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고국 문화소개, 민요·유희, 필리핀 전통춤, 한국생활 수기 낭독 등이 이어진다.

공연장 밖에서는 가족들을 위한 정보전과 다문화가족들의 카빙, 우드버닝, 마크라메 등의 작품 전시와 부대행사가 펼쳐진다.

/익산=유영정 기자 yjy@

#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